

신안군 “누룽섬칩 4종을 즐겨보세요”

신안군농산물가공센터 가공상품 첫 출시

위탁운영체 ‘맛잇섬영농조합법인’ 제조판매

신안군농산물가공센터는 신안군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농산물을 이용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먹을 수 있는 딱딱하지 않고 바삭한 누룽지 스낵 4종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 신안 오곡으로 만든 바삭바삭한 오곡누룽지칩, ▲ 갯벌 게르마늄 토양에서 바닷바람 맞으며 자란 신안섬초와 특허받은 저염고추장을 첨가하여 만든 섬초고추장누룽지칩, ▲ 각종 미네랄을 흡수하여 자란 희귀 염생식물인 신안함초를 첨가한 함초누룽지칩, ▲ 전국 생산량 1위를 자랑하는 신안새우와 자

은도 재래팥콩을 첨가한 새우팽공누룽지칩 등 4품목을 출시하였다.

신안군농산물가공센터 위탁운영체인 ‘맛잇섬영농조합법인’에서 제조판매하는 누룽지칩은 HACCP 인증을 받아 ‘맛잇섬-섬으로 맛을 잇다’ 공동브랜드 상표를 부착, 신안1004몰과 관내의 관광지 농특산물판매장, 농협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축제장 등에서 선보이며, 향후 온라인몰과 개인마트로 차츰 확대 유통시킬 계획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임에도 불구하고 가공센터를 이용한 제품생산과 판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통해 농가소득

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제품개발 및 판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목포 반려견 페스티벌’ 개최

5월 7일 삼학도 공원 일원

목포시가 ‘2022 목포 반려견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시는 ‘함께 ♥ 행복하게 즐겨보게’라는 주제로 오는 5월 7일 삼학도 공원 일원에서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이번 페스티벌은 목포시에서는 최초로 열리는 행사다. 목포시에서는 갈수록 많은 가정이 반려견을 양육하는데 4월 현재 1만1백마리가 등록됐다.

이처럼 반려견이 시민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시는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 목포시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소, 반려견동호회 등과 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통해 페스티벌을 마련했다.

페스티벌은 ‘반려견과 함께 꽃길걷기 페스티벌’을 비롯해 흥보마당, 교육마당, 체험마당, 부대행사 등으로 구성됐다.

흥보마당은 반려견 동물등록 및 동물보호법 개정사항 등을 홍보하는 한편 유기견 입양부스를 운영한다.

기동취재본부



무안군, 농번기 인력 수급대책 마련 위한 간담회

무안군은 지난 14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촌인손 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농업인과 인력사무소 대표 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관계 공무원, 농업인 대표, 인력소개소 대표 등 17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농업인과 인력사무소 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농번기 인건비 상승과 인력수급 방안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농업인단체 대표들은 양파, 양배추 등 농산물 가격 하락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며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많은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활동과 본격적인 양파·마늘 수확기에 군부대, 민간단체 등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요청했다.

인력소개소 대표들은 코로나로 인해 외국 인력의 입국이 어렵지만 인력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전하며 인건비 상승요인 중 하나인 무허가 인력사무소에 대한 단속과 근로자 숙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농업인 대표와 인력소개소 대표들은 농업인과 인력소개소는 상생의 관계이며,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주기적인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다.

배성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간담회가 인건비 상승 억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없겠지만 농촌 인력난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자리가 됐고 앞으로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영암군, 내일부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1차에 신청 못한 농어가 오는 22일까지 읍면에서 신청접수

영암군은 이달 20일부터 22년도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올해도 코로나19 영향과 농자재대 상승과 기름값 상승 등 농어의 어려움이 계속됨에 따라 일시에 영암사랑 상품권으로 600천원씩 지급한다.

영암군은 지난 11일 농어민 공익수당 심의회를 개최 공익수당 신청자

10,432농가 중 주수지 등록 미충족 및 경영체 등록 조건 미충족,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 농가, 동일세대 분리 농가 등 377농가를 제외한 10,055농가에게 1농가 당 600천원씩

총 6,033백만원의 지급한다.

또한 1차에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농가는 이달 22일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 조건은 동일하다.

한편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은 2019년도부터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에 4년 차를 맞이하고 있으며, 유가증권인 영암사랑 상품권으로 지급으로 지역 내에서 소비 할 수 있어 지역경제활동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암=조대호기자

영광군, 벼 재배면적 줄여 쌀값 안정화 기여

벼 감축 협약 참여농가 1ha 감축시 공공비축미 150포대 추가 배정

영광군은 벼 재배면적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재배면적 9,922ha의 4.4% 정도인 437ha를 감축할 계획이다.

신청 요건은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법인으로 지난해 벼를 재배한 논에 올해 타 작물 재배 또는 휴경을 계획하고 있는 농지가 대상이다. 품목 및 면적 제한은 없으며, 다른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 참여 희망 농가는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5월 31일까지 제

출하면 된다.

7월까지 이행 여부를 거쳐 8월 중순까지 공공비축미 배정수량 확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참여 농가에는 1ha 기준 공공비축미 150포대를 추가 배정 받을 수 있다.

또 농업법인·RPC·지역농협의 경우에는 농식품부 공모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와 벼 매입 무이자 자금 차등 배정, 무이자 경영자금 및 농기계 지원 우선 선정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영광=서희권기자

함평군 보건소, 9개 읍·면

해충 방제...방역전담반 편성

함평군이 제24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최를 앞두고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9개 읍·면 해충 방제 작업을 추진했다.

18일 군 보건소에 따르면 위생 해충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난 3월 한 달간 하수구, 공중화장실 등 주요 모기 서식지를 대상으로 유충 방제 작업을 실시했다.

군은 이번 방역 작업을 위해 9개 읍·면 공무원 및 자율방역단 등 280여 명으로 구성된 방역 전담반을 편성하고, 차량용 방역기 18대, 휴대용 방역기 249대 등 가용 자원을 총 동원했다. 또한, 하절기 성충 방역을 위해 공중화장실, 공원 등 위생해충 발생이 높은 장소를 대상으로 분무 및 연막 소독을 주 5회 이상 실시할 방침이다.

함평=김광춘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 온실가스를 없애고
- 미세먼지는 줄이고
- 기후변화까지 막는
-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